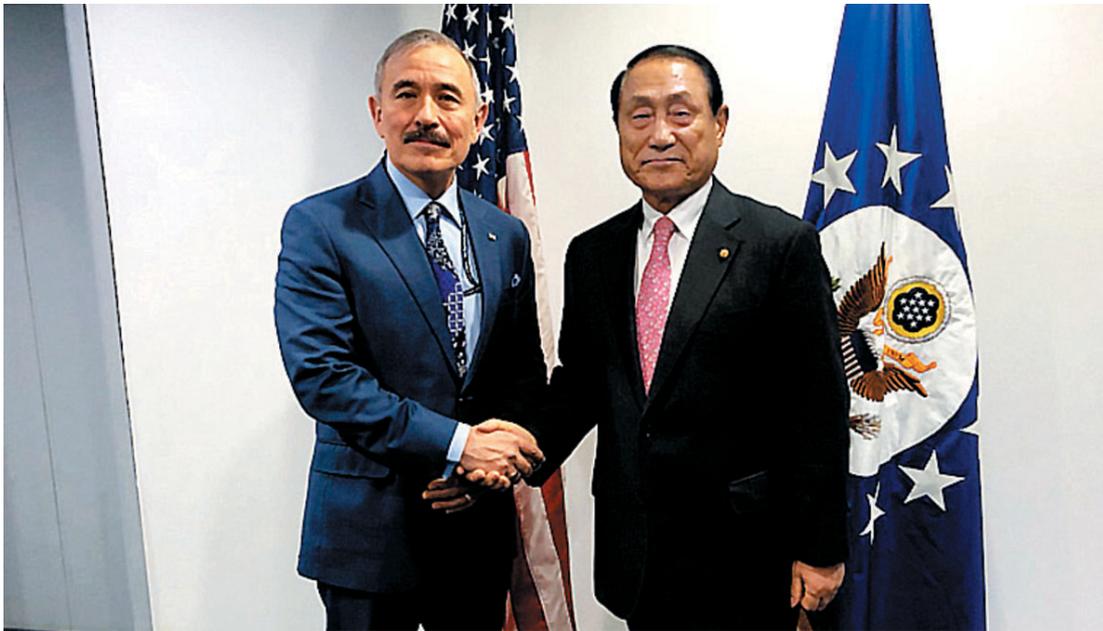


김진호 회장, “일부 과격단체 시위, ‘반미’ 오해 우려” 해리스 대사, “한미동맹 중요성 늘 강조하고 있다”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악수를 하고 있는 김진호 회장과 해리스 주한미대사

김진호 회장, 미 대사와 안보현안 논의

김진호 회장이 지난 1월31일 해리 해리스(Mr. Harry Harris) 주한 미 대사와 최근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회장의 예방을 받은 해리스대사는 반갑게 맞이하며 최근 안보현안으로 떠오른 방위비분담금 협상, 해리스대사의 발언에 대한 비판문제,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폭 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김 회장은 “최근 대사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놓고 일부 과격 시민단체들의 지나친 시위행위와 비

판적 언론 보도 등이 자칫 반미선동으로 오해될까 우려되어 향군이 성명을 발표하고 주요일간지에 광고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대사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시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는 “양국 간에 입장차가 커 조속한 시일 내 원만히 타결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정부 측에 본인의 뜻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김회장이 “지난해 연말 역대 연합사령관 4명이 향군을 방문하여 한미동맹강화 방안과 양국 상호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하자 “본인도 모든 연설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호 회장이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9월18일부터 세계 최초로 계룡대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열린다고 소개하며 해리스대사도 초청하겠다고 하자 “초청해 주시면 기꺼이 참석하겠다.”며 “본인이 도울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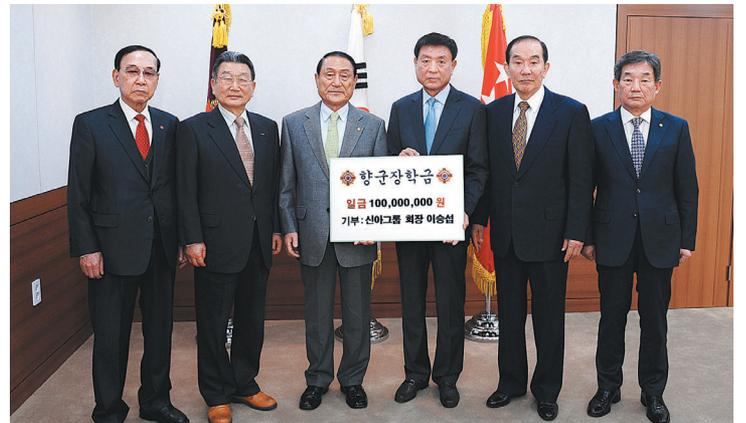
13개 시도 정기총회 개최 ‘코로나 19’ 영향, 행사 최소화

2020년 향군 시도회 정기총회가 2월13일 대전 충남도 향군을 시작으로 2월19일 서울시회, 20일 부산시회에서 개최됐다. 이외에 대구시회, 광주 전남도회와 경북도회, 전북도회와 제주도회, 경기도회와 경남 울산시회 강원도회와 충북도회, 인천시회는 ‘코로나 19’ 심각 단계가 해

제될 때까지 잠정 연기됐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 19’ 감염의 영향으로 기념식을 최소화하고 의안심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바쁜 일정 가운데서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회장단도 참석을 취소했다.

“참전용사 및 향군회원 자녀 장학사업에 써 달라”

신아그룹 이승섭 회장, 향군 장학금 1억원 쾌척



신아그룹 이승섭 회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2월17일 향군을 방문,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참전용사와 향군회원 자녀들의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향군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이회장은 ROTC 15기로 예비역 육군대령이며 2002년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는 신아산업개발을 설

립하여 창립 17주년을 맞는 올해 연매출 1,000억원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진호 향군회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한 이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중한 장학금을 목적에 맞게 뜻있게 쓰겠다”고 말했다.

안보정세보고 / 코로나19로 현실화 된 「신 안보」위협 3면

군번만 있으면 누구나 향군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모바일 앱 2020년 1월 3일 OPEN!

간편한 정회원가입

향군 가맹점 보기

본부 및 각급회 소식

본부 및 각급회 연락처

정회원 자격 : 군번호지자 누구나

-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정회원 특전

- 향군 편의시설 할인혜택 (중앙고속관광, 고성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 전국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 (10~30%)
- 자녀 장학금/생계보조금 지급
- 국립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자 안내
- 각종 향군행사 초청 및 참가
- 기타혜택 (복지물 등)

평생회비 (단 1회만 납부)

병	부사관·위관	영관
1만원	2만원	5만원

QR 코드

← 모바일 바로보기

APP 다운로드 방법

Google Play

App Store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검색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을 클릭하여 설치 후 실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 가입문의 : 02)417-5412

홈페이지 : http://www.korva.or.kr

대구·경북지역민에 마스크 10만장 전달키로

‘코로나19’ 신 안보 차원에서 적극 대응, 성금 모금 운동도 전개

향군은 2월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책 회의를 갖고 안보적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확산방지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우선 향군은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 각 10만개(시가 3억 상당)를

구매해 빠른 시간 내 대구·경북 재난본부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으며 이어 3월2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경북지역 향군을 제외한 전국 향군조직과 향군회원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향군 전 직원에 대해서는 출퇴근 및 근무시간에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을 생활화 하고 당분간 각종 행사 및 집회를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영유아원 및 유치원 휴원에 따라

육아가 불가피한 여직원에 대해서 휴가를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향군은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국가안보의 초석이라는 판단아래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3월 한 달 동안 모금된 성금을 종합하여 대한적십자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안보 위기, 향군이 중심 잡고 역할 다해 주길...”

3사 성우회 회장단 ... “향군 안보활동 적극 지지”

3사관학교 출신 성우회(예비역 장군들의 모임) 회장단 일행이 2월 20일향군을 방문, 회장 김진호 회장을 예방하고 향군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활동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권(예 육군 준장) 회장을 비롯한 송완섭, 이종학, 전승일 부회장과 양원모 고문 등 5명은 이날 향군이 국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보활동의 면면을 소개받고 “성우회 회원이자 향군 회원의 일원으로서 향군이 하는 안보활동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무현 향군 사무총장은 “향군은 현 회장 취임 이후 국내 최고·최대 안보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향군을 방문한 3사관학교 성우회 회장단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김진호 회장

확립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양원모 3사 성우회 고문도 “국가안보 위기 시에 대한민국재향군

인회가 중심을 잡아 안보단체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3사 동문회에서도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 향군의 안보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사 등) 3,817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 조사(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등 20개 문항)로 진행됐다.

북, ICBM시험발사 준비 가능성 오쇼너시 미 북부사령관

테런스 오쇼너시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북한이 위기 혹은 충돌 시에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쇼너시 사령관은 2월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예산안 검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맞서 신뢰할 수 있고

치명적인 방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 도발 자제하고 협상 복귀해야 미 국무부

미국 국무부가 2월18일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깨고 향상된 역량을 시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동의하느냐”는 VOA(미국의 소리)방송의 질문에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답했다.

특별기고

트럼프 탄핵부결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5일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탄핵 사태가 막을 내렸다. 미국 내에서 탄핵 부결 직후 트럼프의 지지도는 49%까지 치솟으면서 그동안의 탄핵 절차가 오히려 지지층 결집 계기로 작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부결로 끝이 나긴 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증인 소환 등을 통해 트럼프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선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번 탄핵 부결로 국내 정치 상황을 정리한 트럼프는 미북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재선 성공의 결정적 이유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위 외교 정책 참모들에게 오는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 대선과 이에 따른 미북 관련 움직임은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탄핵 사태를 벗어난 트럼프가 대선이 마무리되는 올해 11월까지의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관리하려 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앞으로 미북간 대화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트럼프는 그동안 탄핵 대비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북한 관련 문제는 관심사에서 멀어졌고 실무협상도 북한의 철저한 외면아래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다. 북한이 협상재개 조건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로 한껏 협상 문턱을 더욱 높게 만든 것에 대한 해결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하원 국정연설시 북한 문제를 거론치 않았는데, 이는 미 대선간 북한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 연구원이 “북한 문제가 재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공교롭게도 미북 대화의 실질적 막후 중재자인 중국이 ‘우한폐렴’ 사태에 대한 국가 총력전으로 전환한 것과, 북한의 철저한 외면으로 우리 정부와의 실질적 대화가 단절된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우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협과 개별관광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중요한 관건이다. 향후 미국의 대선결과가 미북관계는 물론 우리의 안보 정책 추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 대선간 양당 후보들의 한반도 안보정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추진과 한반도 주변 미 전략자산 전개상황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ICBM을 쏘지 않게 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며 대선을 진행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선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에 대해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가 “김정은이 한다면 하는 지도자로 반드시 새로운 전략무기를 머지않아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와 같이 김정은이 내치를 위해 영도자의 위상에 걸맞은 강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긴 하나,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강경 대응으로 전환함은 물론 군사옵션을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을 예고한 바 있어 북한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도발을 결심하기까지는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올해 1월 1일 발표한 대화 관련 내용을 보면 미국과 대화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양국의 입장이 180도 달라서 그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도 대선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과 북핵을 이고 사는 우리는 향후 더욱 냉담해질 수 있는 안보여건에 주의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북한이 그동안 호언장담한 ‘충격적 실제 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 감에 있어 그들의 호전성과 김정은의 체제유지를 위해 모험적 도발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군사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호국안보국>

안보단신

학생 31.8%, 북한하면 ‘전쟁·군사’ 떠올라

통일부와 교육부가 작년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31.8%가 “북한” 하면 어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생각)로 ‘전쟁/군사’를 꼽았다. 2018년 29.7%에 비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증가했다.

조사는 현대리서치컨설팅이 초·중고 598개교(초등 5·6학년생 19,679명, 중학생 23,094명, 고등학생 23,269명)과 교사(초등학교 담임교사, 중학교 사회·도덕·역사

안보정세보고

코로나19로 현실화 된 「신 안보」위협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코로나19)의 공격으로 지구촌은 초 비상상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인류에 대한 감염병의 경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페스트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앓아감으로써 봉건사회 몰락을 재촉했고, 제1차 세계대전 와중에 창궐한 스페인독감은 사망자가 약 5000만 명에 달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3배나 더 많았던 사례가 있다.

이러한 감염병은 기존의 안보개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국가 안보의 범주에 두고 관리하여야 할 사안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신 안보의 개념과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신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 안보 문제의 등장 배경

시대의 변화는 인식과 사고 및 개념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 주체들 간 관계의 틀이 바뀌면서 안보의 개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탈냉전 움직임은 미·소 양대 슈퍼파워간 전개되었던 군사력 중심의 안보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냉전의 종식은 군사적 측면에서는 위기의 수준을 완화시켰지만 그 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환경·자원·인구·기술·보건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위협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군사적 측면에 치중했던 과거 전통적인 안보와 달리 탈냉전기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한 행위자들을 통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복잡한 형태로 부각되었다.

탈냉전 이후 전통적인 안보와 대비되는 새로운 안보의 개념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새로운 안보의 개념에는 전통적인 안보의 주체인 국가 행위자 이외 개인이나 단체 등 행위자들도 안보의 주체로서 포함되며, 동시에 군사영역 이외에 정치와 경제 및 사회, 환경 등 비군사적 영역도 안보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듯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행으로 변화된 안보 개념은 새로운 정보화기술의 등장과 지리적 팽창, 보편적 인권의 요구,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새로운 정치적 이슈의 발현, 국가·사회·영토적 단위의 붕괴, 국내와 국제정치의 경계약화, 단일한 공간의식의 생성 등으로 물리적·공간적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었다.

인구와 물자의 이동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특정지역에 국한하던 안보문제가 지역을 초월하여 글로벌 영역으로 영향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국가를 주체로 하는 군사력 위주의 안보 담론에서 이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신 안보'라는 개념적 틀 안에서 인식하게 됨으로써 안보의 개념과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신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 안보 위협의 추세는, 군사적 위협의 엄중성이 감소했다기보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1세기 들어 세계화와 동시에 국가간 의존성이 확대되고, IT기술의 발전과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국경적이고 비인간적인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위협들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를 개념화함으로써 그에 부합하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계화 현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안보 사안을 도출하는 노력에서 더 나아가 안보환경 변화의 전체적인 특성에 관한 포괄적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신 안보 문제의 개념과 범주

가. 신 안보의 개념

신 안보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① 전통적인 안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② 탈냉전 및 정보화·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③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가 주권국가의 영토 보전을 위해 외교 또는 국방 정책을 통해 국가간에 발생하는 군사적 갈등을 예방하고 승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신 안보는 주체(국가+개인, 단체, 자연 등)와 대상(군사력+비군사적 수단 또는 물질) 측면에서 대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안보가 미·소 양극체제 하에서 군사력(핵무기)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의 산물이라면, 신 안보는 국가간 교류확대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 등 초국경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생성된 것이다.

신 안보는 과거에 없다가 새롭게 나타난 위협이라기보다는, 이전에는 소규모의 안전 문제에 그치던 이슈가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 과정을 거쳐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의미한다.

중국·일본 참여, 공동 대응위한 동북아 협력 기구 구성

나. 신 안보의 범주

최근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신 안보 문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으로 범주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탈냉전 이후 안보영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안보는 군사와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다섯 가지 주요 영역에서 비롯된다.

첫째, 군사안보는 국가의 무력 공격 능력과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을 의미하며, 둘째, 정치안보는 조직 측면에서 국가의 안정성과 그 국가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을 뜻한다. 셋째, 경제안보는 적절한 수준의 복지와 국력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장과 재정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안보는 전통적인 문화와 언어 및 종교, 민족정체성, 관습 등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섯째, 환경안보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의존해야 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으로 일정 지역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경제포럼〉은 『Global Risks Report 2018』에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위협을 지적하고 위협의 종류를 5개 분야 즉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적 위협으로 나누고, 각 분야 별로 앞으로 10년 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28개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 대형인재,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정보 인프라 파괴, 식량위기, 만성 질환과 감염병, 데이터 사기와 절도 등을 미래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신 안보의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신 안보 분야의 구분 및 위협 내용

구분	신 안보 위협의 내용	
자연 환경 분야	기후 변화	• 지구온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생태계 교란 • 대기 오염 파괴로 폭염·폭우 발생, 광범위한 인명과 재산피해 • 해안도시 침수 및 물 부족 사태로 지역보존 유발 및 생태계 파괴 초래
	에너지 식량	• 4차 산업혁명 영향 신산업의 핵심연료인 희소 금속 확보경쟁 심화, 국가간 분쟁 촉발 • 생산용지 축소와 가격 상승 및 다국적 곡물·종자기업의 M&A등으로 식량주권 위협
	재난 재해	• 기후변화와 기술발전, 환경파괴 등으로 재난 재해의 발생 빈도 증가 및 피해규모 확대
사회 분야	보건 (감염병)	• 신종 바이러스와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치사율과 파급력 측면에서 피해 범위와 규모 증가 • 사스, 메르스 등 동물로부터 전이되는 인수공통 감염병 최근 20년간 70%를 차지 • 병원균 악용 생물무기화 가능성
	인구	• 의료기술 발달과 공중환경 개선 등으로 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지속 증가세 (2023년 80억명 - 2065년 100억명 규모 예상, UN, 2017) • 선진국과 저개발국간 '인구 양극화' 심화 - 선진국은 인구절벽 현상, 저개발국은 인구과잉
	이민 난민	• 국제사회내 이민자 급증추세(2000년 7,100만명 - 2015년 2,44억명) • 난민유입으로 인한 고용약화, 감염병, 테러 발생 등 위험수준 증가
기술 분야	인공 지능	• 킬러로봇 개발 등으로 생명과 재산안전 및 사회 윤리적 문제 발생 • 시를 악용한 가짜뉴스 확산, 악성코드 전파, 해킹 등 불법행위 증가
	사이버	• 세계 네트워크 축적, 디지털 기기 확대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환경 조성 • 국가간 정보 정거, 개인과 기업의 정보탈취, 랜섬 웨어 유포 등 공격 유형 다변화
	테러	• 자율주행차, 무인드론 등을 활용한 테러수법의 진화로 대응에 어려움 가중 • 해킹, 가상화폐 등 합법·불법수단을 동원한 테러자금 다각화

신 안보 문제의 특징

첫째, 위협의 잠재성이다. 신 안보 문제는 평소에는 외면에 나타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또는 정책담당자들의 관심 밖에서 있으나, 임의 시점에 부상하고 빠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감염병, 테러, 사이버, 기후·환경 문제, 인구문제,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등은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누적되면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보체계와 대응시스템 구축은 물론 장기적 과제로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상황 발생의 불가측성이다. 신 안보 문제는 잠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개별 인간의 안전 차원의 문제로 머물러 있던 이슈들이 양적인 증가(발생빈도)와 질적인 전환(영향력, 파급력) 과정을 거쳐 임의 시점에 국가차원의 안보문제화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발생시점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성이다. 신 안보 위협은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개별 국가단위의 대응 보다는 지역간 연합이나 국제기구와 국가간의 협력 및 국가 상호간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넷째, 상호 위협의 연계성이다. 신 안보 이슈들은 독자적으로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지보다는 다른 이슈들과 연계성을 가지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슈별로 대응하는 핀셋 방식도 중요하지만 상호 복잡하게 얽혀있는 신 안보 위협의

인식하에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포괄적·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위협의 현재성이다. 핵무기는 인류의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워 75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한 사례가 유일하다. 그러나 신 안보 위협은 오늘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실제 상존하는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핵무기를 능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때문에 국민감정을 약화시키고 외교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여섯째, 해결의 난제성이다. 핵무기는 그동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통제되어 왔고 앞으로도 각국이 해결의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신 안보 위협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사태 발생 시 국제사회와 개인 및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 간 이해가 충돌하고 개인의 자유, 인권이 보장되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신 안보 위협 대비

가. 신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

군사력 위주의 전통적인 안보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기후·환경과 보건, 식량, 에너지, 테러와 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신 안보 문제)의 양과 질은 확대 및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신 안보 위협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이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개념규정 측면에서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이유로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 신 안보라는 개념적 틀 안에서 강력한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이슈로 인식·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내용 측면에서 신 안보 이슈들이 단순히 개인차원의 안전 문제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초국가적인 글로벌 이슈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기 측면에서 문제발생시 마다 개별 이슈에 대한 단기적 대응에 주력하는 응급조치식 단계를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나. 신 안보 문제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신 안보 문제는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이론 정립이 미비한 실정이다. 신 안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인식공유, 국가간 협력, 정책발전 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이론적 체계화가 선결 과제이다.

우선 싱크탱크 차원에서 신 안보의 개념과 적용 범위, 의미와 중요성, 효율적인 대응체계, 해외 사례 및 국제협력 방안, 위협지수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럼·학술회의·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부 유관 부처와 학회 등에서 적극 활용토록 협조해 나가야 한다.

다. 컨트롤 타워간 협력강화 및 「국가 신 안보전략」수립

현재 국가의 위기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NSC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 위기 관련 상황관리 및 초기대응 기능을 수행(「국가안보실 직제」, 대통령령 제 29077호, 제4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15764호, 제6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체제에서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신 안보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신 안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으로 「국가 신 안보전략」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라. 신 안보 위협 관련 대외 협력체계 구축

신 안보 문제는 이슈간 연계성이 강하고 초국경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신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국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우선, 상호 인접해 있고 향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예상되는 남 북간에 신 안보 분야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신 안보 문제를 통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협력(산림·보건)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추후 <신 안보 문제 협의기구>가 구성되면 동 기구로 일원화 하고 이와 함께 남북한과 중국 및 일본이 참여하는 신 안보 위협 공동 대응 동북아 협력 기구의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INSS 전략보고, 신 안보 문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1. 24

※ 본 안보정세 분석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국방단신

해외참전용사회관 건립 지원 롯데그룹에 감사패



국방부는 2월5일 서울 롯데타워를 방문하여 ‘해외 참전용사회관 건립사업’에 적극 협조해 준 롯데그룹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해외 참전용사회관 건립사업’은 2013년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해외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활동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롯데그룹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롯데그룹은 2013년부터 19년까지 총 27.8억원의 사업비를 후원하여 태국·콜롬비아·에티오피아 3개 국가에 참전용사회관을 건립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해외 참전용사회관이 참전용사 분들의 복지증진과, 후손들에 대한 교육지원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롯데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해외 참전국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개혁 자문위원 34명 위촉



국방부는 2월1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2.0’ 추진을 자문하는 ‘2020년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위원장에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군 구조 분야에 9명, 군 문화 분야에 11명, 방위사업 분야 9명, 4차산업혁명 국방혁신 분야 4명 등 34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혁하기 위한 개편계획 본격 시행 ▶투명하고 개방된 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의 전환기반 마련 ▶병영문화의 혁신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회기적인 방위사업개혁 추진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평화와 혁신, 공정, 포용 등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해 국방개혁 2.0의 주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개혁과제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장관, 주한미군전우회와 간담회

6·25 참전용사 초청행사도 열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간 2월 23일 월터 샤프(전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전우회(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 KDVA)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초청해 한미동맹을 위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현역 시절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를 위해 헌신했고 전역 후에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KDVA 구성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샤프 회장은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더욱 강력히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히 금년이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동맹에게 특별한 한해인 만큼 한미동맹의 가치를 고양하고 주한미군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장관은 이날 6.25참전용사를 만찬에 초청하여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에

월트 샤프 회장
“한미동맹 가치 고양할 것”



사의를 표하는 자리도 마련, “우리 국민은 영원히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기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에 사의를 표했다.

정경두 국방, 인도 6·25전쟁 참전부대 방문

6·25전쟁 70주년 의미 되새기며 희생과 헌신에 감사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월 6일 인도군 6·25전쟁 참전부대인 제60공정야전병원과 그 상급부대인 제50공정여단을 방문하여 인도 장병들을 격려하고 6·25전쟁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도 측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정경두 장관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70년 전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을 구한 여러분 선배장병들의 헌신과

용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60공정야전병원은 1950년 11월 한국에 파견되어 1954년 4월 철수할 때까지 낙하산으로 최전선에 투입되어 부상병들을 치료했다. 임원환자 2만여 명과 외래환자 19만 5천명을 치료하고 2,324회의 수술을 실시하는 등 헌신적인 의료지원 활동을 하였다.

국군수송사령부,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국군수송사령부 호송대대가 1월23일 “대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군 관련 드라마와 각 군의 SNS 홍보 등을 통해 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립대전 청소년 위캔센터가 맞춤형 진로 설계 활동을 마련하면서 이뤄진 이번 병영체험은 새로운 형식의 진로체험이라 점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고 경쟁도 치열했다.

대대는 청소년들에게 군의 기본 임무와 부대 소개를 한 뒤 호송작전 장비 견학·착용, 병영생활관 견학, 기본 제식 교육 등을 제공했다.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군인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외 의학문헌 번역, 소아암 환우 지원

공군 병사들로 구성된 번역봉사 동아리가 해외 의학문헌 번역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아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국내에서만 해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소아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봉사는 더욱 눈길을 끈다.

공군3방공유도탄여단 예하 8622부대 번역봉사동아리 호아(HOA·Hope Of Airforce) 병사들은 재단법인 한국 소아암재단 중부지부와 연계해 소아암 환아와 그 가족들, 소아암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의 논문·칼럼·기사 등을 국어로 번역해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번역하는 자료에는 소아암 치료 및 의약품 연구개발, 소아암 환자 호스피스, 해외 소아암재단 활동사례 등 전문 의학 문헌도 포함돼 있어 평소 꾸준한 관심과 바탕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장병들은 “군 복무 중 틈틈이 하는 봉사가 환아와 그 가족, 자원봉사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며 책임감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혈액 공급 위기, 해군 장병 11만ml 헌혈

‘코로나 19’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뒤 헌혈자가 줄면서 국내 혈액 공급이 ‘위기’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해군1함대 장병과 군무원 270여 명은 2월3일부터 6일까지 부대 내에서 진행된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해 총 11만ml의 혈액을 모았다.

이번 헌혈은 헌혈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1함대 의무대와 강릉 혈액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1함대는 많은 부대원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병 헌혈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했다.

해군1함대는 “장병들이 헌혈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면서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입한 장병 헌혈 인센티브제도가 헌혈 참여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훈처, 미국·캐나다 방문...6·25 70주년 사업 논의 '추모의 벽' 건립 설계비 20억 전달, 건립비도 지원할 예정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이 2월16일부터 6박8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로버트 윌키 미국 보훈부 장관과 로렌스 매컬레이 캐나다 보훈부 장관을 만나 6·25전쟁 70주년 보훈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미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을 방문, '존 킬렐리(John Tilelli)' 회장을 만나 '추모의 벽' 건립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설계비 20억원을 공식 전달했다.

'추모의 벽'은 워싱턴 D.C. 중심부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 추모연못 주변에 건립되며 전사자 등 약 3만 6천여 명의 이름을 새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추모의 벽 설계비 지원에 이어 디자인이 최종 결정되면 2021년 이후 건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한 22개 유엔(UN)참전국에 대한 감사표명과 협력강화를 위해 매년 유엔참전용사와 유족 초청, 국제보훈워크숍, 현지 위료연 등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6월에 국내에서 22개 유엔참전국 보훈부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캐나다 현지에서 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훈칼럼

국가유공자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

지난해 12월 한 국가유공자의 아버지가 보내온 손편지를 받았다.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아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군 복무 중 경추 손상을 입고 장애인이 됐던 11년 전을 회상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였다”고 썼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자신의 헌신에 자부심 느끼는 것이 보훈의 본질

그가 다시 희망을 본 건 3년 전. 아들이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소속으로 탁구를 시작하면서였다. 그는 “아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며 “연습을 거듭하며 실력이 향상됐고 수원보훈재활센터에서 합숙하면서 실력이 더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최근 아들은 남미 국제대회에도 참가했다.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체육회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외 대회 제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버지는 “부족한 실력인 제 아들과 저를 먼 나라까지 가서 경기할 수 있도록 해주 감사하다. 제 아들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편지 두 장을 꼭 채운 아버지 마음에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손으로 쓴 답장을 보냈다.

보훈의 본질은 국가유공자가 자신의 헌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편지는 모든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보훈의 본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더 단단히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줄곧 전국을 돌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동안의 보훈정책은 분명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보훈의료만 해도 현장에서 “(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이 너무 멀고 대기시간도 길다”, “지정 위

탁병원의 약제비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여전했다.

보훈처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가 집과 더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320여 개인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과 지방 4개 도시 재활센터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약제비 감면 혜택은 6개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 참여 확대는 물론 시민 참여도 법제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보훈심사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제대로 모시는 것 국민통합의 출발점

우리 역사 계승을 통한 ‘국민통합’ 역시 보훈의 또 다른 역할이다.

특히 올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과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국민통합의 초석이 될 굵직한 기념식이 많다.

2020년 국가보훈처는 ‘보훈’을 통해 좌절을 희망으로 바꾼 어느 국가유공자 아버지와 같은 사례가 더 많아지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보훈 철학이 모든 보훈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말이다.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모시는 것, 그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국민통합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2020년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보훈 철학이 모든 보훈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본고는 2월12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

‘6·25 통해 맺어진 ‘참전인연’ 후손 통해 계승



한-뉴질랜드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유지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2월2일부터 5박 7일간 '2020년 한-뉴질랜드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를 뉴질랜드 현지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9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보훈처 간 체결한 상호 협력 및

교류를 위한 ‘협력의 향서(Statement of Intent)’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국내 대학생 20명과 뉴질랜드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20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을 통해 맺어진 국경을 넘는 참전인연

을 후손들을 통해 이어가는 한편 유엔참전국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매년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함께 국내에서 평화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참전국 현지를 방문하여 비전캠프를 실시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고 유엔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⑩

장충동 회관에서 잠실타워까지... 조직 활성화 및 자립기반 마련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관은 시·군·구회 이상에서 현재 210개동을 보유하고 있다. 시·군·구회 기준으로 27개회가 미 보유 상태이지만 대부분 지자체와 협조하여 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거나 보훈회관에 무상으로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향군 최초의 중앙회관은 장충동 회관이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7-2소재에 2,454평의 국유지를 불하받아 1960년 11월 착공하여 2년만인 1962년 10월 30일 완공하고 11월 1일 성대하게 준공식을 거행함으로써 회원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 향군의 첫 회관인 장충동회관은 연건평 630.8평의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로 일부 정부지원과 회원 및 현역장병들의 성금으로 신축하였다.

그 후 회원의 증가와 향군의 역할이 늘어나고 조직이 점점 커짐에 따라 장충동 회관이 점차 협소하게 되고 회관의 증축 또는 신축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비전 2010', 잠실회관 재건축 추진 2013년 지상 30층 향군타워 준공

향군은 잠실에 중앙회관을 현대식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1979년 11월 26일 송파구 신천동일대 개발지역 사유지 4,668평을 매입하였다. 설계와 76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7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86년 9월 신축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공사를 시작한지 1년6개월 만인 1988년 2월 23일 지상12층 지하 3층의 현대식 빌딩으로 탄생되었다. 중앙회관 건립은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로, 조직 활성화를 위한 터전으로, 회관 운영수익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 등 향군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안정된 가운데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2000년대가 되면서 주변에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향군회관은 재산 가치에 비해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그대로 운영할 경우 지역의 낙후 건물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재건축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향군은 2002년 12월 '비전 2010' 장기계획에 반영하여 회관재건축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 과정에서 두 차례의 시공사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사업시작 후 2007년 8월 건축허가를 취득한 다음 2009년 3월 국가보훈처의 사업승인을 거쳐 2009년 8월 신동아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3일 향군타워 착공식을 가졌다. 공사를 시작한지 2년만인 2013년 4월 5일 성대하게 준공식을 했다. 향군타워는 지상 30층 지하6층 연면적99,140.76m2 규모로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초고층 건물로 우뚝 섰다.

현재 27개 각급회 미 건립 지자체와 협의, 100% 확보 추진

한편 각급회 회관 건립도 그 역사가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향군의 각급회 조직이 확대되고 회원이 증가하면서 본회는 각급회 회관 건립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1차 5개년 계획(1965~1969)에 반영하여 추진하였다. 재원은 각급회 자력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본회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였다.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던 1969년에 158개동의 회관이 건립되었다.

1973년부터는 2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회관 건립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1982년부터는 표준회관 제도를 시행하여 회관의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크게 달라졌다. 시·도회의 경우 토지는 140평에서 200평, 건평은 80~100평으로 하고, 시·군·구회는 토지 70~100평, 건평 40평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그 이후 향군의 자산가치가 대폭 증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회관 미 보유 시·군·구회의 회관건립을 향군발전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2006년까지 100%확보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 현재 27개회가 회관을 미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보유회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되고 있어 머지않아 회관 건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보실>

경남 울산 향군, 태국지회 방문...의약품 기증



경남·울산 향군(회장 손도수)은 최근 향군 태국지회(회장 이종혁)를 방문, 최근 안보정세 및 재향군인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6.25참전용사들을 위한 의약품을 전달했다.

김천 향군 여성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다양한 이웃돕기 활동도 추진할 것...



김천시 향군 여성회(회장 이정화)는 2월10일 김천시여성기업인협의회와 함께 김천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정화 회장은 "작지만 기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하게 되었다"며 "지역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재향군인회에서는 성금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이웃돕기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중섭 김천시장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김천시내 저소득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184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오산한국병원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 031-379-8676 : 10%

기타

· 남대문비전안경원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02-771-1199 : 30~50%
· 코바플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 02-3679-7070 : 근조 3단 화환 78,000원, 축하 3단 화환 59,000원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 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요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삼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20~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

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죽교동 440-4) 061-243-3399 : 30%

기타

- 그린리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동 1085) 042-488-0424 : 10%
-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우수회 탐방 / 전라북도 향군

작지만 강한 조직,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위기 돌파



전라북도 향군회관

최근 전라북도 향군은 '내 고장 전라북도 자랑'이란 책자를 발간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내 고장 홍보 및 지역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이 책은 전라북도 14개 시 군별로 지역 홍보 및 특화사업, 관광자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별로 6.25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참전 회고록을 수록하여 예우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내 고장 전라북도 자랑' 책자 발간사업은 14개 시군 및 231개 읍면동의 향군 조직의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평가받으며 대국민 안보의식 고양은 물론 지역 홍보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재도약 기틀 마련한 향군회관 이전 임직원들 한마음으로 각 계에 협조 구해

전라북도 향군(회장 주대진)은 2014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에 회관을 마련했다. 구 회관 매각대금 및 보유기금에다 1억4천

여원의 전라북도 보조금을 합해 18억4천여만원이 소요됐다.

주대진 회장이 취임했던 2012년, 전북 향군회관은 노후되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주 회장은 회무 제일 중점을 회관 이전에 두고 이를 추진했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십 차례 도청을 드나들며 회관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그리고 임직원들도 주 회장과 함께 노후회관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했다.

그 결과 전북 향군은 요지로 볼 수 있는 지금의 향군회관을 마련해 입주했다. 회관 이전을 위해 주대진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다. 전라북도 향군은 이를 기점으로 제2의 도약을 시작했다.

고 소병민 중령 추모사업 주관 호국안보보훈단체 향군 위상 자리매김

주대진 전라북도 향군회장은 3회 연임하며 9년째 조직을 이끌고 있다. 주 회장은 취임 이후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필두로 전북 향군회원들과 함께 지금까지 매년 안보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의 일원으로 그 책임과 소명을 다하고 있다.

또 연평도 포격도발, 서해 1차, 2차 교전,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도발에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위한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고귀한 넋을 기리는 한편 대국민 안보교육

의 장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피 흘린 유엔 참전 16개국을 방문, 추모하는 해외 안보현장 견학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향군은 전북 동부 보훈지청에서 주관해 오던 전주 출신 호국영웅 고 소 병민 중령 추모사업을 몇 년 전부터 주관하여 호국보훈안보단체로서 향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매년 11월 고인의 동상이 위치한 전주교정문 앞에서 거행되는 추모식은 전북도청과 동부보훈지청의 지원을 받아 시민·학생·현역군인, 12개 안보 및 보훈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어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몸소 실천하신 고귀한 고인의 넋을 추모하고 있다.

전라북도 향군은 도회 예산을 최소 편성하고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14개 시 군의 운영체제 또한 정비 중에 있다.

재정 어려움 극복, 지자체 보조금으로 자립 10% 미만 조직, 운영비 지원하며 '상생'

그리고 지자체와 긴밀한 유대강화를 통해 도회를 비롯한 시 군회가 3억7천여만원의 자치단체 보조금을 획득, 운영비와 행사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 부진회 2개 회에 대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전라북도 향군은 주대진회장의 리더십과 회원들의 화합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다.

고통을 분담하고 검소한 회무 운영을 통해 더욱 단결되고 화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 작지만 강한 조직 전라북도 향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힘찬 박수를 보낸다.



고 소병민 중령 추모행사

대전 충남 향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간담회



대전·충남 향군(회장 박재운)은 2월4일 중구 부사동 소재 향군회관 강당에서 대전·충남 21개 시·군·구회 사무국장을 긴급 소집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자들은 각종행사 간소화 등 감염증 예방활동 실천을 위한 회무지침을 마련하고 재난 관련 향군 매뉴얼대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 회원 모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영주시 향군, 부사관 학군단 임관 축하

경북 영주시 향군은 2월13일 경북전문대학교 제4기 RNTC(부사관 학군단) 임관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후보생들의 장도를 축하했다.

영주시 향군은 이날 "학군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2년간 어렵고 힘든 길을 끈기와 인내로 이겨내어 임관하는 후보생들을 격려하며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사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사관 후보생들의 임관을 기념하여 학교 생활을 회상하며 봉인하는 타



임캡슐 행사와 동판 부착, 영주시 향군회장의 표창 수여 및 축사, 기념촬영, 총장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한편 33명의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들은 2월28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거행되는 임관식을 통해 영예로운 하사로 임관했다.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 향군 각급회 활동

(1월21일 ~ 2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2월13일 방문 향군을 방문한 서울시의회 김화숙 의원과 서울향군 지원사업 및 여군창설 70주년 행사관련 업무협의

부산시 향군



부산시회 : 2월20일 향군회관에서 사회 김현주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마련한 400만원을 월남참전국인 베트남 다문화 가정자녀 등 8명에게 향군 장학금으로 전달.



서구회 : 아미동회는 1월22일 설 명절을 맞아 아산경로당을 방문, 위문음식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

대구시 향군

서구회 : 2월3일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동구회 : 여성회는 2월17일 향군회관에서 제8대 김병숙 회장 취임식 거행.

남구회 : 2월3일 동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안보활동 등 업무현안에 대해 논의.



수성구회 : 2월13일 수성대학교와 상호 교류 협약식을 갖고 안보 교육 및 향군 정회원 가입 홍보 등 상호 협력 협약.



달서구회 : 2월4일 성서 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위문물품 전달.



달성군회 : 매주 토요일마다 읍·면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비슬산 산불예방활동 전개.

인천시 향군



연수구회 : 1월22일 재능있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향군예술단이 실버벨 요양원을 방문, 위로 공연 실시.



계양구회 : 2월8일 화관건물에 세입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갈곳 없는 외국인(몽그저락)가족에게 지역사회 사회유관단체와 협조하여 도움 손길.

경기도 향군



수원시회 : 여성회는 2월20일 팔달노인복지관에서 청소, 설거지, 반찬, 배식 등 '워

표 없는 봉사' 실천.

충청북도 향군



청주시회 : 2월7일 박병준 청년단체에 위촉과 수어, 향군업무 활성화를 위한 노력 당부. 여성회는 2월10일 청주시로부터 '2019 공원아름지기'에 선정 감사패 수상. 2월11일 개신동 배수지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영동군회 : 1월21일 회장 설 명절을 맞아 영동 2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 여성회는 1월22일 자원봉사 센터와 연계하여 불우한 이웃,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떡 나누기 행사 참여.

대전 충남 향군



대전 대덕구회 : 여성회는 2월4일 관내 주요거리에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 시민들로부터 호평 받아.

대전 중구회 : 1월21일 설 명절을 맞아 여 지역 국가유공자 및 독거어르신들에게 떡국 떡 400kg(200박스) 전달.

전라북도 향군

전주시회 : 2월6일 효자동 소재 한 식당에서 예비군 중대장 및 중대원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유대강화. 2월14일 덕진구 소재 기관·단체·기업체·사업체 대표들의 봉사단체인 '덕진회' 회원 25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실시.



고창군회 : 1월22일 설 명절을 맞아하여 자매결연부대인 고창대대를 방문, 장병들을 위문.

부안군회 : 여성회는 1월21일 설 명절을 맞아하여 부안 군내에 거주 하는 불우한 이

웃 10가정에 이불을 전달.

김제시회 : 여성회는 2월5일 백산면 일원 경로당에서 이월 봉사활동 실시. 2월19일 전북 서부보훈지청에서 주관한 2020년 보훈정책 설명회 참석, 보훈 및 안보 현안 토의.



남원시회 : 여성회는 1월22일 설 명절을 맞아 남원시여성문화센터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 펼쳐.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2월13일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이종연 장성국장의 공로와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재직기념패 증정식 가져.

영암군회 : 여성회는 2월6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10대 광복덕 회장 취임식 개최.



보성군회 : 2월3일 보성군 안보 보훈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참배행사 실시.

경상북도 향군



경산시회 : 1월31일 희망2020 나눔 캠페인 동참을 위해 경산시청을 방문,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영주시회 : 1월28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장육현 영주시장과 새해 간담회를 갖고 향

군활동 지원 요청.

문경시회 : 여성회는 2월12일 문경시장 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음식 및 배식, 설거지 등 봉사활동 실시.

상주시회 : 2월19일 상주시민장례식장과 향군우대가맹점을 체결, 현판식 행사 가져.

경남 울산 향군

양산시회 : 2월5일 보훈회관 5층에서 울산 보훈지청장 및 보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훈사업설명회 참석.

의령군회 : 1월22일 아동복지시설 해림학원을 방문,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위로.

거제시회 : 여성회는 1월28일 거제면 '정원', 송정리 '소망의 집' 등 복지시설을 방문, 봉사활동 실시.

진주시회 : 1월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보조비 수령대상자 가정을 방문, 위로 격려.

하동군회 : 2월13일 적량면 호국공원 태극기 및 향군기를 교체 및 정화작업 실시. 2월18일 8962부대 5대대를 방문, 흑한기에 국토방위에 여념없는 용사들을 격려. 2월19일 진주 하안메디컬 병원과 MOU를 체결, 회원 할인 20% 혜택.



밀양시회 : 여성회는 1월 21일 밀양시장 애인복지센터를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고

6.25참전용사 10가구에 위문품 전달.

창원 진해구회 : 1월29일 롯데시네마 진해점에서 2019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사은행사를 갖고 감사 뜻 전해. 여성회는 2월12일 노인복지회관을 방문, 독거노인세대에 드릴 밀반찬 전달.

창원 의창성산구회 : 2월2일 창원국제사격장 결선강당에서 동회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산악단 창단식 가져.

울산 동구회 : 방아동 여성회는 1월30일 노인복지회관에서 급식봉사활동 실시.

울산 중구회 : 여성회는 1월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7765부대 4대대를 방문하여 사랑의 떡국봉사 실시. 1월 23일 반구동 소재 무료급식소에서 급식봉사 전개.

울산 남구회 : 1월21 설 명절을 맞아 달동 일대에서 자연정화활동 및 재래시장 장보기 활동 전개.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2월14일 향군회관에서 도회 및 시회 사무국장 간 간담회를 갖고 업무 현안 토의. 2월19일 향군회관에서 전직 회장 및 임직원 간담회를 갖고 업무 현안 보고. 여성회는 2월13일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제주사라의 집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

취임을 축하합니다

지역 향군 이끌어 갈 새 리더, 신임 시군구 향군회장

■ 인천시 남동구회



회장 오두석
(예 공군 병장)

■ 인천시 계양구회



회장 구승서
(예 육군 일병)

■ 인천시 미추홀구회



회장 이하민
(예 육군 병장)

■ 경기 군포시회



회장 전중희
(예 육군 병장)

■ 경기 양평군회



회장 한응섭
(예 육군 대위)

■ 충남 예산군회



회장 한상목
(예 육군 하사)

■ 전남 나주시회



회장 염용준
(예 육군 소령)

■ 전남 여주시회



회장 우종완
(예 육군 병장)

■ 경북 안동시회



회장 박현순
(예 육군 병장)

■ 경북 영주시회



회장 민병철
(예 육군 병장)

■ 경북 청도군회



회장 박복현
(예 육군 병장)

■ 경남 김해시회



회장 김승욱
(예 육군 병장)

■ 미동부지회



회장 김인철
(예 해병 대위)

■ 미북중부지회



회장 박희중
(예 육군 중위)

■ 미북서부지회



회장 남중대
(예 육군 병장)

■ 프랑가지회



회장 문성민
(예 해병 중위)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해외감염병 NOW**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차차 이용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친목단체 활동

정경두 국방부장관 초청 간담회



성우회(회장 이종욱)는 1월29일 정경두 국방장관 초청으로 회장 취임축하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공병전우회 정기총회 개최



공병전우회(회장 한봉희)는 1월31일 국방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 이사회 개최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우승란)는 2월13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병기동우회 정기총회 개최



병기동우회(회장 정명규)는 1월30일 국방컨벤션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회장 박종암)는 1월30일 황해도 민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헌병전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헌병전우회(회장 홍중섭)는 1월31일 육군회관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실시했다.

갑종장교전우회 정기총회 개최



갑종장교전우회(회장 김영갑)는 1월30일 군인공제회관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영관장교연합회: 3월4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 개최. 3월20일 삼정호텔에서 제30차 정기총회 개최.
- ▲갑종장교전우회: 3월12일 회 사무실에서 상임운영위원회의 개최.
- ▲공병전우회: 3월24일 육군회관에서 병과창설 기념행사 실시.
- ▲정보동우회: 3월25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 개최.
- ▲공군전우회: 3월25일 공군호텔에서 정기총회 개최.
- ▲6.25참전유공자회: 3월26일 서초 구민회관에서 정기총회 개최.
- ▲백마고지참전전우회: 3월28일 제기동사무소에서 정기총회 개최.
- ▲포병전우회: 3월12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자연보호활동 실시. 3월31일 전쟁기념관에서 제17주년 창립기념행사 실시.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여행정보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3월14일, 15일 진안군 삼거광장에서 열린다. 남한 유일의 고원지대인 진안고원에서 채취한 청정 자연 음료수 운장산 고로쇠는 정제기로 정제하여 깨끗하게 품질관리가 되고 있다.

고로쇠축제장에서는 고로쇠원정대, 고로쇠수액·막걸리 빨리 마시기, 고산기원제, 팔딱팔딱 송어잡기, 가수왕 선발대회, 청춘다방, 전통놀이 체험 등 고로쇠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과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진안고원운장산고로쇠축제위원회 063-430-2391~3>

구례 산수유 축제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서 울해도 노오란 산수유꽃이 지리산 자락에서 그 고운 자태를 드러내며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봄의 전령사인 산수유 꽃과 함께 약동하는 새봄의 정취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구례 산수유 축제가 3월14일부터 22일 지리산 온천관광단지에서 열린다. 매년 산수유꽃이 필 무렵에는 지리산자락에서 고로쇠약수 또한 한창이므로 이 즈음에 국내외 관광객을 많이 다녀가곤 한다. 이 축제에서는 산수유 꽃으로 만든 차, 술, 음식 등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 체험 행사,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구례군 061-780-2726~7>

부산 코믹월드 2020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서로 교류할 뿐 아니라 만화인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는 장인 부산 코믹월드 2020 축제가 3월28, 29일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린다. 만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고 그 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만화/애니/캐릭터 종합 이벤트 코믹월드는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직접 창작한 창작품을 전시 및 판매할 수 있고 프로 만화가나 성우를 만날 수 있다.

<에스티테크노(주) 051-583-2470>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6·25전쟁 전승기념관을 찾아

후방 교란 공비토벌, 지리산지구 전적기념관

6,333위 영령 추모하는 기념비 및 2개 전시실 갖춰

지리산지구 전적기념관은 여수·순천사건과 6·25전쟁 이후 지리산에 숨어든 무장공비와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해 벌인 지리산지구 공비토벌 전적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기념비와 2개의 전시실이 있다. 기념비는 토벌 작전 중 전사한 6,333위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 광한루 원 경내에 있다가 1987년 6월 기념관으로 옮겨졌다. 현재 탐방안내소의 전시실에는 당시 빨치산들이 사용하던 생활용품과 무기류·작전도·기록화·모형물·사진

이 전시되어 있다.

1979년 11월23일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 입구에 연건평 475㎡, 총 소장품 39점, 지상 2층 건물로 국방부가 조성한 기념관은 노후되어 철거되었고 현재는 신축된 탐방안내소에 지리산 전적기념비와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내려준 '충훈'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만이 남아있다. 1983년 10월10일 관리권이 남원군으로 이관되었다가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리산지구 전적기념관

※ 지리산 덕유산 지구 공비 소탕 작전

1950년 11월 한국 전쟁에 중국군이 참전하자 국군 제1사단과 제8사단이 지리산 일대 빨치산을 토벌하다 전방으로 이동했다. 그 뒤 1950년 말부터 1951년 말까지 후방에서 빨치산의 활동은 극렬해졌다. 이현상을 총사령관으로하는 일명 남부 군단은 후퇴하지 못한 북한 인민군 잔병과 남조선 노동당 출신의 구 빨치산들로 구성되어 후방 보급로를 위협하였고 민간의 동요도 심했다. 이에 1951년 11월 휴전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화되자 최전선에서 2개 사단을 차출하여 지리산과 덕유

산 일대 공비를 섬멸하기 위해 사령관 백선엽의 성을 딴 '백야전 사령부'가 창설되었다.

백야전 사령부의 4차례에 걸친 동계 토벌 작전으로 남부군을 비롯한 공비 대부분이 격멸되었고 후방 지역은 평온을 유지했다. 백야전 사령부의 해체 이후에는 전투 경찰이 토벌 작전을 계속했다. 1953년 9월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이 사살되었고 1956년에는 빨치산 활동이 완전 소멸됐다.

백야전 사령부의 공비 토벌 작전은 맹위를 떨치던 빨치산 주력을 단기간에 대부분 섬멸하여 병참선을 확보하고 후방 교란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뒀다.



건강정보

극심한 불안 '공황장애', 금연 금주가 매우 중요

공황장애는 반복적인 공황발작과 예기불안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먼저 공황발작은 갑작스럽게 심한 공포나 불편함이 수분 내 최고조에 이르고 이 동안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빈맥, 심장의 두근거림, 호흡곤란, 발한 등이 있으며, 정신적 증상으로는 극심한 불안,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등이 있다.

예기불안은 공황발작이 다시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공황발작을 경험한 상황에 노출될 것을 상상하거나 노출되기 전 공황발작과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황발작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황발작이 올 것만 같은 장소(공공장소, 답답한 장소, 대중교통, 터널 등)를 회피하게 된다. 이러한 회피 증상은 불안을 강화시키고 일상생활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원인

공황장애의 생물학적인 원인은 신체 내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물질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외부 유발 물질로는 이산화탄소, 카페인 등이 있다. 심리적으로는, 신체감각에 대한 예민함이 공황장애 발병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불안 민감성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심리적 현상은 사소한 감각이나 불편도 '큰 병이 아

닐까, 죽는 것이 아닐까, 공황발작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로 이어지게 되고 이 공포가 자율신경계 각성을 유발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게 된다.

공황장애의 위험요인으로는 청장년 시기의 나이, 여성,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핍, 흡연, 알코올 문제, 부모의 정신장애, 생애초기 외상적 사건이나 학대, 불안성 기질, 최근의 이혼이나 이별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 등이 있다.

진단·검사

반복된 공황발작과 예기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전문의의 면담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공황발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약물이나 내외과적 질환을 우선 감별해야 한다.

카페인 및 각성제(일부 다이어트 약물 등)나 알코올 금단증상도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감별해야 할 내외과적 질환으로는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혈당증 등이 있다. 보통 이러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들을 진행합니다.

치료방법

공황장애 환자는 증상을 심장, 호흡기 질환으로 생각하여 응급실이나 일차 진료의원을 흔히 이용하는데 이렇게 진단이 미뤄져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

다. 때로는 응급실이나 일차 진료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받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를 늦추는 경우가 있다.

먼저 공황장애 약물치료의 목적은 공황발작의 반복을 줄이는 것인 동시에 예기불안, 회피행동 및 우울증 같은 공존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흔히 항우울제로 알려진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빠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유용하다.

공황장애의 약물치료 효과는 약 3개월 후 평가를 하며 약물에 반응을 한 이후에도 약 6개월 이상 치료를 지속한다. 만성적이고 재발이 잦아 대개 12-24개월 정도의 유지치료를 권장한다. 비약물적 치료로는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

공황장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쉬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안심하고 예기불안이 공황발작을 유지·악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인지오류를 교정하며 불안반응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예방법

가장 쉬운 공황장애 예방법은 위험요인을 피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연·금주가 매우 중요하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또한 공황발작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향군장학기금

※ 기간 : 20년 1월 28일 ~ 20년 2월 21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220)
- 경기도 부천시재향군인회 심곡동회 회장 조상익 3(16)

▶ 정기기부

- 前 홍보실장 이정호 1(265)
- 권율부대 강모아 1(55)

▶ 특별기부

- 신아그룹 회장 이승섭 일억(1억)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향군 안보활동 기조

목 표 『국가안보단체』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활동!

● 국민안보의식계도/국가안보정책 지원

구 분	중 점	기 조
□ 북한 실체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게 하는 것	1 북한의 실제 인식	☞ 대상별 북한 실상 교육
	2 대북 안보 정책	☞ 정책별 상황 고려 대응
	3 북핵·미사일 대비	☞ 북핵·미사일 해결을 전제한 대화/교류 지지 ☞ 북한 비핵화 실패시 향군의 대응 방향 제시
	4 대국민 안보활동	☞ 안보 상황 고려 다양한 주제 선정 시행
□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가 육성 되도록 하는 것	5 군 조직 지원 활동	☞ 군의 입장을 고려한 향군 차원의 대응
	6 군 사기 진작 활동	☞ 군인(대)의 국가관 및 자긍심 고양 활동 지원 ☞ 전투력 향상을 전제한 복무여건 개선 지지
□ 한미동맹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	7 한·미 동맹	☞ 굳건한 한·미 동맹 강화 활동 전개 ☞ 한미동맹 저해 요인 발생 시 대응
	8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 독자적인 안보역량 구축 조건 충족 시 전환

● 기타 안보 활동 분야

구 분	중 점	기 조
□ 향군차원의 공공외교 지원활동	9 해외지회 및 우방국 예비역 단체와 공공외교 활동	☞ 각국의 안보단체와 연계한 교류 협력 시행
□ 보훈·안보단체와 연계한 안보활동	10 안보단체와 교류/협력 활동	☞ 사안별 교류와 협력
□ 기타	11 향군 차원 추가 사안 발생시	☞ 상황고려 대응

대응목표

향군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응기준

- 기조 일치시/상이시 구분 활동
- 명분과 실리 추구!

대응절차

현안안보 점검 회의를 통한 주제 선정 / 대응!